

# 대형 유통업체, 入店商 목조른다

일방적 계약에 과다한 수수료, 관리비 멋대로 부과

탈나면 책임 떠넘기기 일쑤… 우월적 지위 악용 심각

광주지역 대형의류매장에 입점한 지역 상인들이 과다한 수수료와 불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인 유통업체와 의류제조업체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에서 아동복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매출액의 17%를 영업이익으로 받는다. 이씨가 한 달 동안 1천만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임대 수수료 180만원(18%)을 롯데아울렛에, 이씨와 계약을 맺은 의류제조업체(본사)에 650만원(65%)을 내야한다.

또 임대수수료와는 별도로 롯데아울렛에 내는 매장관리비(전기료, 청소관리비 등)와 인건비까지 주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돈은 없다. 특히 계약서에는 순매출액의 18%를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총매출액의 18%를 공제해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매장 관리비를 의류업체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매장에는 부과하지 않으면서 중간관리자로 입점한 점주들에게만 걸어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가 지난 6개월 동안 롯데아울렛에 지급했던 매장 관리비는 지난해 9월 20만원, 10월 60만원, 11월 98만원, 12월 90만원, 올 1월 97만원, 2월 81만원이었다. '판매시점관리(POS) 사용료' 등 관리비 공제 항목도 매달 늘면서 관리비도 '돌づ날쭉'했다. 특히 전기료는 개·폐점 시간이 동일하고 영업일이 비슷한데도 지난해 10~11월 3만원대였던 것이 12월과 올 1월에는 14만원대로 크게 올랐다가 2월에는 다시 3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차이가 커졌다.

이씨는 특히 "당초 A브랜드만 열 계획이었지만 아울렛측이 의류제조업체 본사와 계약했다며 패밀리 브랜드인 B와 C도 함께 오픈할 것을 요구해 마지못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비와 수수료가 브랜드별로 부과되면서 이씨는 비슷한 매장 크기로 타 지역 롯데아울렛에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보다 세 배나 많은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씨가 매장을 내놓겠다고 하자 아울렛측은 "롯데쇼핑 매입부와 의류업체 본사가 새로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다려달라"고 했고, 의류업체 본사는 "새로운 점주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3개월 이상 차일피일 미뤄 수수료와 관리비 부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른 의류판매 점주들도 대형 유통업체와 의류제조업체 사이에서 고통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씨는 특히 "당초 A브랜드만 열 예정이었지만 아울렛측이 의류제조업체 본사와 계약했다며 패밀리 브랜드인 B와 C도 함께 오픈할 것을 요구해 마지못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리비와 수수료가 브랜드별로 부과되면서 이씨는 비슷한 매장 크기로 타 지역 롯데아울렛에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보다 세 배나 많은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들은 관리비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고 패밀리 브랜드 매장도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감독하는 만큼 지역 상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의류제조업체 본사의 요구로 월드컵점에 입점한 상인들도 '율며 겨자먹기'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손실 등에 대한 부담까지 모조리 떠안고 있어 매출이 줄어도 손해를 감수하며 장사를 하고 있다. 월드컵점 입점을 거부한 R브랜드 점주는 본사가 모든 계약을 파기하면서 세정아울렛에서도 매장을 철수해야 했다.

박재일 광주세정아울렛 부회장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반품비용, 세일비용 등도 점주가 부담하고 있어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해서는 사실상 이익을 보기 어렵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의류제조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롯데아울렛 수완점 관계자는 "협의된 계약기준으로 관리비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없고 패밀리 브랜드 매장도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감독하는 만큼 지역 상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글로벌오토토크·디지큐브  
리눅스아이티·무진기연  
지오메디칼·하이코리아

## 지역中企 6곳 '특허스타기업' 등극

크는 군용차 컨버전, 엠플러스 제조업체로 전기차 동차(NEV, EV)의 모터·모터드라이브 등 전기차 동차용 각종 전장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이다. (주)디지큐브는 포토용 인화지 및 인화필름, 키오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염료승화형 인화기술과 프린터 인화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 전문업체인 (주)리눅스아이티는 자체 개발한 임베디드 보드를 기반으로 휴넷워크, 자동제어, 지능형 로봇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주)무진기연은 원자력발전 설비 기계 및 보조

기기를 제조하고 있다.

미용칼라렌즈 및 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주)오메디칼은 신개념 주문형 콘택트렌즈를 연구 개발 중이다. (주)하이코리아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인증제품인 '고무발포다열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를 업체는 특허정보 컨설팅을 비롯해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비 지원, 시뮬레이션 제작, 홍보물 제작 등에 이르는 '원스톱(One-Stop)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임태희 장관, 오늘 광주서 일자리 창출 특강

상의·광은리더스클럽 등 지역경제발전 모색



더스클럽 등 4개 기관은 '지역사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고용포럼과 광은리더스클럽은 임태희(사진) 노동부장관을 초청, 8일 오후 4시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특별 강연회를 연다.

이날 특강에서 임 장관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조법 시행령 개

정 내용, 생산적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강연한다. 임 장관은 특강 후 지역 경제인 등 참석자들로부터 건의사항도 들을 예정이다.

특강에 앞서 광주지방노동청·광주상공회의소·광주은행·광은리



### 한치의 오차도 없이

7일 광주 북구 매곡동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귀금속 공예부문에 참가한 한 여대생이 가공작업에 실패를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광주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타일과 한복 등 44개 직종에 588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흑염소 먹고  
젊어지세요**

오늘은 '흑염소데이'

"4월 8일에는 흑염소 먹고 젊어지세요."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전남도지회가 흑염소고기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4월 8일을 흑염소데이'로 정했다.

'노화방지 등 건강에 좋은 흑염소 고기를 먹고 '새파랗게' 젊어지자는 뜻에서 4월 8일을 '흑염소 데이'로 정했다.

전남도지회는 '흑염소 데이'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 전국흑염소전업농협회 이관선 수석부회장은 "흑염소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E(토코페롤)가 많고 지방이 적어서 노화방지에 좋은 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한우 1마리 585만원…사상 최고

국산 쇠고기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한우의 산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가축동향에 따르면 한우 수컷(600kg 기준)의 월 평균 산지가격은 지난 1월 584만6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가는 지난 날 12월의 578만9천원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소 이력 추적제 시행과 더불어 정육점형 식당이 늘어나면서 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산지 한우값도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1분기 한우·육우의 사료 마리수는 270만6천마리로 전분기 대비 7만9천마리(2.7%) 증가했다. 젖소는 44만9천마리로 전분기보다 4천마리(0.9%), 돼지는 976만8천 마리로 전분기보다 18만3천마리(1.9%)가 늘었다.

/연합뉴스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국제보청기



문 편 062-227-9940  
온천 편 061-752-9940  
충주 편 061-282-9200  
충청북 편 062-227-9970

전화 061-752-9940  
문 편 061-282-9200  
온천 편 062-227-9970  
충주 편 061-751-2422

## G 주식회사 자터



SINCE 1988

## 칠만표 방수제

'사물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100% 보증수리

제작 후에는 자동으로 보증수리

A상, 자동차, 목재, 투자재, 소방栓, 방수제, 보증수리

B상, 자동차, 목재, 투자재, 소방栓, 방수제, 보증수리

C상, 자동차, 목재, 투자재, 소방栓, 방수제, 보증수리

082-371-7095  
011-601-7701